■민족문화연구 제96호(2022.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357-379.
http://doi.org/10.17948/kcs.2022..96.357

세계 평화를 지향한 한용운의 독립운동
—『조선불교유신론』과 「조선독립의 서(書)」를 중심으로—

김순석(金淳碩)*

목 차

1. 머리말
2. 『조선불교유신론』에 나타난 자유와 세계평화주의
3. 「조선독립의 서」에 나타난 자유・평등과 세계평화 지향
4. 맺음말

국문초록

한용운(韓龍雲, 1879-1944)은 승려로서 시인이고, 독립운동가였다. 그는 서구 시민사상을 수용하였지만 그의 사상적 근원은 불교에 있었다. 지금까지 기존의 연구는 한용운의 독립운동이 민족주의라는 테두리 안에서 연구되어왔다. 민족주의는 불교사상과 양립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불교는 오히려 탈민족적인 보편성을 지향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는 군국주의가 맹위를 떨치던 시대에 자유와 평화를 꿈꾸며 대중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였다. 혼란의 시기에 그는 빛나는 지성으로서 실천불교를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진정한 구도자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한용운은 한말 서구 제국주의 세력이 밀려들던 격동기에 태어나 국권이 상실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출가

*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

하여 승려가 되었다. 그는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세계 여행을 선택하였고 그 길에서 서구 문명의 자유와 평화를 만났다. 그는 서구 철학을 수용하여 그것을 불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그것이 『조선불교유신론』과 「조선독립의 서」였다. 이들 책과 논설에는 그의 사상이 집약적으로 나타나있는데 그 요지는 자유와 평등은 만인에게 부여된 천부인권이므로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용운이 일생동안 전개하였던 독립운동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민족을 넘어서 세계평화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주제어: 한용운, 제국주의, 민족주의, 세계평화, 조선불교유신론, 조선독립의 서, 칸트, 데카르트.

1. 머리말

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 : 1879-1944)은 승려이면서 불교개혁가이며. 시인이고, 독립운동가였다. 그는 다양한 행로를 걸었던 까닭에 그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시작되었고 연구성과 또한 많아서 그에 관한 연구와 저술 등이 천 여 편을 넘는다[1]고 한다. 한용운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된 것은 아마도 1979년 『한용운전집』이 간행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2]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박사학위 논문[3]이 다수 발표되었고, 그 당시 이미 '만해학'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4] 그는 3·1운동 당시 민족대표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만세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그의 독립운동 영역은 대체로 문화운동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범주로 나뉘어 볼 수

1) 한상길, 「근대 동아시아 사조와 만해의 개혁사상」, 『선문화연구』 16, 선문화연구회, 2014, 76면.
2) 서준석, 「한용운의 불교관계 저술의 현황과 과제」, 『만해축전』,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04, 113면.
3) 김재홍, 「만해문학연구 어디까지 왔나」, 『만해축전』,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04, 162-165면; 「한용운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1; 김현자, 「김소월, 한용운 시에 나타난 상상력의 변형구조」,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2; 윤재근, 「만해시 『님의 침묵』연구: 연작시로서 특성을 중심으로」,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82; 유근조, 「소월과 만해 시의 대비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83; 김영석, 「한국시의 생성이론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84; 김영호, 「휘트먼과 한용운의 비교연구」, 일리노이주립대 박사학위논문, 1984; 김용태, 「한국 근대시의 경험 유형 연구: 소월. 이상, 만해의 대비」,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89; 신용협, 「현대 한국시의 시 정신 연구: 소월. 만해, 석정, 청마 시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89.
4) 김재홍, 앞의 글, 1981, 156면.

있다. 첫째, 3·1운동에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이다.[5] 둘째, 「독립선언서」 가운데 '공약삼장'을 놓고 최남선 전담설[6]과 한용운 수정설[7]에 관한 논의들이다. 이 논의는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결정적인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기 전까지는 쉽게 결론이 내려질 것 같지 않다.[8] 셋째, 신간회 경성지회장으로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9] 등이다. 한용운의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사를 정리한 논문으로는 「한용운 민족운동 연구에 대한 성찰」[10]이 있다. 한용운의 일생이 독립운동에 바쳐졌음에도 그의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성과[11]는 많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만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조직되어

---

5) 김법린, 「3·1운동과 불교」, 『신생』 창간호, 신생사, 1946; 이종욱, 「三一運動의 回顧」, 『동아일보』, 1958년 3월 1일; 김상호, 「한국불교 항일투쟁 회고록」, 『대한불교』, 1964년 8월 23일; 김한기, 「범어사 사건」, 『신동아』 3월호, 1965; 백성욱, 「3·1운동과 중앙학림」, 『동대신문』, 1966년 6월 20일; 안계현, 「3·1운동과 불교계」, 『三·一운동 50주년 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 조은택, 「3·1운동과 불교인의 활약상」, 『法施』 18, 1969; 김상현, 「3·1운동에서의 한용운의 역할」, 『이기영박사고희기념논총』, 이기영박사고희기념논총편찬위원회, 1991; 「한용운과 공약삼장」, 『동국사학』 19·20, 동국사학회, 1986; 「효당 최범술(1904-1979)의 독립운동」, 『동국사학』 40, 동국사학회, 2005; 채상식, 「일제시기 梵魚寺의 사회운동」, 『한국문화연구』 4,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91; 김창수, 「日帝下 佛教界의 抗日民族運動」, 『가산 이지관스님 화갑기념논총 한국불교문화사상사』 하, 가산 이지관스님 화갑기념논총편찬위원회, 1992; 박걸순, 『한용운의 생애와 독립투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3·1독립선언서 공약삼장 기초자를 둘러싼 논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4; 「3·1독립선언서 공약삼장 기초자에 대한 재론」, 『한국근현대사연구』 46, 한국근현대사연구회, 2008; 전보삼, 「한용운의 3·1독립운동에 관한 일고찰」, 『한용운사상연구』 3, 만해사상연구회, 1994; 송건호, 「만해 한용운의 민족운동」, 만해사상연구회, 『한용운사상연구』 3, 만해사상연구회, 1994; 김소진, 「大韓僧侶聯合會宣言書와 佛教界의 獨立運動」, 『원우논총』 13, 숙명여대 원우논총편집위원회, 1995; 『대한독립선언서연구』, 국학자료원, 1999.

6) 조용만, 「독립선언서의 성립 경위」,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 신용하, 「3·1운동 발발의 경위」, 『한국근대사론II』, 지식산업사, 1977; 홍일식, 「3·1독립선언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박걸순, 앞의 글, 1994; 앞의 책, 1992; 앞의 글, 2008.

7) 박노준·인권환, 『萬海 韓龍雲硏究』, 통문관, 1960; 安啓賢, 「3·1운동과 불교계」,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 崔凡述, 「鐵窓哲學」, 『나라사랑』 2, 외솔회, 1972; 廉武雄, 「萬海 韓龍雲論」, 『창작과 비평』 겨울호, 창작과비평사, 1972; 金觀鎬, 「尋牛莊見聞記」, 『한용운사상연구』 2, 한용운사상연구회, 1981; 김상현, 「한용운과 공약삼장」, 『동국사학』 19·20, 동국사학회, 1986; 박노자, 「기미독립선언서 '공약삼장' 집필자에 관한 고찰」, 『불교평론』 8, 불교평론사, 2001; 김광식, 「한용운 민족운동 연구에 대한 성찰」, 『한국선학』 31, 한국선학회, 2012; 『한용운 연구』, 동국대 출판부, 2011.

8) 김광식, 앞의 책, 2011, 265-266면.

9) 강미자, 「한용운의 신간회와 반종교운동 인식에 대한 일고찰」, 『한국불교학』 48, 한국불교학회, 2007b.

10) 김광식, 앞의 글, 2012.

1999년부터 만해축전을 개최하고, 2003년에 백담사 부근에 설립된 만해마을이 2013년 동국대학교에 기증[12]됨에 따라서 연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용운에 대한 연구는 문학 방면의 성과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불교개혁론이나 독립운동 등의 영역은 여타 분야와는 불균형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13] 한용운은 신분이 승려였고 주된 활동 영역이 불교계였지만 승려로서 불교사상이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소략하다. 이 말은 아직까지 한용운 행적의 전체상을 그려내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하겠다. 그 원인은 불교계의 관심 부족과 근현대불교사 연구자의 숫자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14]

지금까지 한용운의 독립운동은 민족주의라는 테두리 안에서 연구[15]되어져 왔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민족 최대의 과제는 독립의 쟁취였기 때문에 독립운동은 당연히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연구는 독립운동가의 행적 발굴과 선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여전히 유용하다. 그렇지만 불교 교리는 혈연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주의를 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과 해탈의 대상으로 보면서도 그마저도 부정[16]하기

11) 김광식, 「한용운의 불교사회주의」, 『불교학보』 85, 불교학회, 2018; 「한용운 민족운동 연구에 대한 성찰」, 『한용운 연구』, 동국대 출판부, 2011; 「한용운의 민족의식과 조선불교유신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5, 민족운동사연구회, 2003; 이지원, 「3·1운동기 '평화사상': 조소앙과 한용운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4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강미자, 「한용운의 불교개혁운동과 민족주의운동」 경성대 박사학위논문, 2007a; 앞의 글, 2007b; 박노자, 앞의 글, 2001; 신용하, 앞의 글, 1977; 홍일식, 앞의 글, 1989; 박걸순, 앞의 글, 1994; , 앞의 책, 1992; 앞의 글, 2008; 송건호, 앞의 글, 1994; 김상현, 「한용운의 독립사상」, 『한용운사상연구』 2, 한용운사상연구회, 1981; 앞의 글, 1986; 앞의 글, 1991; 전보삼, 앞의 글, 1994; 「만해 한용운과 신간회」, 『유심』 14·15, 한용운사상실천선양회, 2003.

12) 「만해사상실천선양회, 동국대에 만해마을 기증」, 『경향신문』, 2013년 4월 3일.

13) 김광식, 「한용운 불교 연구 어디까지 왔나」, 『만해 한용운 연구』, 동국대출판부, 2011, 23면.

14) 김광식, 같은 글, 23-24면.

15) 고은, 『한용운 평전:인간 한용운을 보다』, 향연, 2004; 김삼웅, 『만해 한용운 평전』, 시대의 창, 2006; 김광식, 『한용운 평전: 첫키스로 만해를 만나다』, 참글세상, 2009; 『萬海 한용운 연구』, 동국대출판부, 2011; 박걸순, 「3·1운동 전후 한용운의 독립사상과 구조」,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91, 2022.

16) 불경 가운데 『金剛經』이나 禪書 가운데 하나인 『六祖壇經』에서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발원하라. 일체 중생들이 모두 제도되고 나면 단 한 사람의 중생도 제도한 적이 없다고 하라'고 한

때문에 민족주의라는 시각으로 한용운의 사상을 진단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본다. 그런 까닭에 민족주의는 불교사상과 양립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탈민족적인 보편지향의 성격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7]. 이러한 시도는 문학 부분에서 먼저 일어났지만 불교적 시각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유토피아라는 개념[18]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한용운의 불교적 유토피아 의식을 일제하 고통스런 민족적 현실에서 불법의 회복을 통한 불국토가 건설되기를 꿈꾸었다는 점을 밝혔다. 문학적 측면에서 한용운의 시를 분석한 이 연구는 불교적 시각에서 이상향인 유토피아를 지향하였다는 점을 조명하였지만 불교 교리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지는 못하였다.

한용운의 사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가 승려였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불교는 세상 만물이 하나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나와 너 그리고 중생을 구별할 수도 없고, 분별해서도 안된다[19]'고 한다. 승려로서 이러한 교리를 터득하고 실천하고자 하였던 한용운은 이미 민족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받아들였다. 한용운은 군국주의가 맹위를 떨치던 시대에 자유와 평화를 꿈꾸며 대중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였다[20] 혼란의 시기에 그는 빛나는 지성으로서 실천불교를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진정한 구도자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선불교유신론』과 「조선독립의 서」를 중심으로 한용운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세계평화였다는 것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들은 이미 제도되어있는 완전한 존재이지만 중생들이 자신이 이미 제도되어있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17) 조성택, 「근대불교학과 한국근대불교」, 『민족문화연구』 4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7, 83면.

18) 김옥순, 「한국 근대시에 나타난 유토피아에 대하여—한용운과 신동엽의 시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18, 이화어문학회, 2000; 김경복, 「한용운 시의 불교적 유토피아 의식 연구」, 『한국민족문화』 74,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

19) '須菩提 若菩薩 有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 卽非菩薩' 「大乘正宗分」 『金剛經』.

20) 구모룡, 「만해 사상의 동아시아적 맥락—방법적 모색」, 『만해 연구, 성찰과 모색』, 민족문학작가회의, 2004, 95-96면.

2. 『조선불교유신론』에 나타난 자유와 세계평화주의

1913년에 발간된 『조선불교유신론』은 당시 불교계의 모순과 비합리성을 지적하고 혁신적이라 할 만한 개혁안을 담고 있다. 그는 1909년 일본을 방문하여 불교계와 새로운 문물을 돌아보고 귀국하여 1910년 백담사에서 『조선불교유신론』을 탈고하여 불교서관에서 출간하였다.[21] 이 책에서 그는 일제강점기라는 위기 상황에서 불교가 대응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불교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는 당시 불교계의 위상이 침체된 상황에서 개혁을 완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 제도적·사상적인 면에서 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용운은 『조선불교유신론』을 집필하면서 양계초(梁啓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22] 메이지[明治]시대 서구의 근대 문명과 철학 사상은 양계초의 저서를 통해 그에게 전달되었다. 양계초는 일본 망명 시기를 통하여 근대 지성 후쿠자와 유키치[福澤有吉]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23] 후쿠자와는 유럽과 미국 방문을 통하여 서구 문물을 수용하였는데 그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대 일본 명문 사학인 게이오의숙[慶應義塾 : 현 게이오대학]을 설립하였다.[24] 양계초를 통해 근대 문물을 접한 한용운은 『조선불교유신론』에서 당시 불교계의 봉건적이던 폐습들을 혁신하는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종 의식 간소화와 승려의 혼인문제, 주지의 선거, 승려의 단결, 사원의 통괄 등 불교계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개혁안의 요지는 한국 불교계 전반에 걸친 비종교적·비시대적·비사회적인 인습을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시대발전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진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하였다. 향후 세계 문명은 진보를 계속하여 이상(理想)에 도달하지 않고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21) 한용운, 『조선불교유신론』, 불교서관, 1913.
22) 김춘남, 「양계초를 통한 한용운의 서구 사상 수용」, 『현암신국주박사화갑기념 한국학논총』, 논총간행위원회, 1985.
23) 조명제, 「한용운의 『조선불교유신론』과 일본의 근대지」, 『한국사상사학』 46, 한국사상사학회, 2014, 320면.
24) 조명제, 같은 글, 320면.

자유와 평등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 근세의 자유주의와 세계주의가 사실은 평등한 진리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자유의 법칙을 논하는 말에 '자유란 남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써 한계를 삼는다'고 한 것이 있다. 사람들이 각자 자유를 보유하여 남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다면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와 동일해서 각자의 자유가 수평선처럼 가지런하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각자의 자유에 사소한 차이도 없고 보면 평등의 이상이 이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또 세계주의는 자국과 타국 이 주(洲)와 저 주, 이 인종과 저 인종을 논하지 않고 똑같이 한 집안으로 보고 형제로 여겨 서로 경쟁함이 없고, 침탈함이 없어서 세계 다스리기를 한 집을 다스리는 것 같이 함을 이름이니 이 같다면 평등이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라 할 것인가.[25]

위의 글에서 한용운은 자유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는 나의 자유가 소중한 만큼 남의 자유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평화를 위한 공존의 조건이므로 상호존중의 정신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가 이 글을 집필하던 시기는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던 때였고, 책이 발간되었을 때는 이미 국권이 상실된 이후였다. 당시 그는 부자유스러운 상황에 처해있었지만 자유의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자유의 개념은 평화를 유지하는 공존이었다. 이것은 불교의 근본 사상인 평등을 의미하며 평등은 평화를 전제로 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

한용운의 자유와 평화 개념은 서구 근대 서적을 읽고 받아들였다. 그는 데카르트와 칸트를 비롯하여 헤겔, 파스칼, 스피노자, 홉스, 스펜서, 존 로크, 루소, 베이컨, 다윈, 뉴턴 등 여러 서구 철학과 사상을 분석적・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조선의 현실과 불교에 자유를 응용, 체화시키는 단계로 나아갔다.[26] 한용운은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자국과 타국을 구별하지 않고 인종을 구별하지 않으며, 형제처럼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다. 이것은 민족주의에서는 수용될 수 없는 개념이다. 그런 까닭에 한용운은 민족주의를 넘어서 세계평화를 지향하였다고

25) 한용운, 이원섭 역, 『조선불교유신론』, 운주사, 1983, 29-30면.
26) 한상길, 앞의 글, 82면.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라는 식민지 치하에서 민족의 독립은 지상과제였다고 할 수 있지만 한용운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승려로서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불교 교리를 체득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는 서구 사상을 수용하여 이미 계몽주의자로 변신해 있었던 양계초의 불교인식을 이렇게 평가하였다.

> 불교·기독교 두 가지가 다 외국에서 발생한 종교로서 중국에 들어왔는데 불교가 널리 퍼진 데 대해 기독교가 퍼지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기독교는 오직 미신을 주로 하여 그 철리(哲理)가 천박해서 중국 지식층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한 데 대해 불교의 교리는 본래 종교면서 철학적인 양면을 갖추고 있었으니 그 증도(證道)의 이상을 깨닫는 데 있고 도(道)에 들어가는 법문(法門)은 지혜에 있고, 수도하여 힘을 얻음은 자력(自力)에 있으니 불교를 예사 종교와 동일시해서는 안된다.[27]

한용운은 이러한 양계초의 불교 인식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음빙실문집』을 통하여 서구 철학자들의 사상을 이해하였다.[28] 한용운은 서구 철학자들 가운데 칸트를 이렇게 평가하였다.

> 칸트는 만약 선인이 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누구나 선인이 된다고 했으니 그 본체가 자유롭다고 믿었기 때문이어서 수양이라는 면에서 볼 때 좀 더 절실하고 행하기 쉬운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해서 주자(朱子)의 명덕설 같은 것은 만인이 동일한 본체를 지니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부처님에게 못 미치는 점이라 하겠고, 또 말하기를 명덕이 기품의 구애와 인욕의 가림을 받는다 하여 자유로운 진정한 자아와 부자유스러운 현상적 자아의 구분에 있어서 한계가 명료치 않았으니 이것이 칸트에 비해 미흡한 점이다. 칸트의 본의에 의하면 진정한 자아는 결코 다른 무엇에 의해 구애되는지 가리어지든지 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구애를 받고 가림을 받으면 그것은 자유를 상실한 것이라 하였다.[29]

한용운은 양계초가 석가와 칸트의 다른 점을 언급한 것을 보건대 반드시

---

27) 한용운, 『한용운전집』(이하 "『전집』"으로 약칭) 2, 불교문화연구원, 2006, 38면.
28) 한상길, 앞의 글, 79면.
29) 한용운, 이원섭 역, 앞의 책, 19면.

모두가 타당하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왜 그런가 하면 석가는 천상천하(天上天下)에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하였는데 이것은 사람마다 각각 한 개의 자유스러운 진정한 자아를 지니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석가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진정한 자아와 개별적으로 지닌 진정한 자아에 대해 미흡함이 없이 언급하였으나 다만 칸트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그것에만 생각이 미쳤고 만인에게 보편적으로 공통되는 진정한 자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였다[30]고 하였다.

『조선불교유신론』에는 한용운의 세계인식이 녹아있다. 그는 자유와 평화를 근본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지향하였으며, 불교를 통해 새로운 문명세계를 추구하였다. 그는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서구 문명의 본질을 알아야 서구화를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니, 오늘 이 땅의 현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그러한 자기반성이 있은 후에 서구로 유학을 가서 그 문명을 배워서 우리 실정에 맞게 변용시키고, 활용한다면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용운은 조선불교가 쇠퇴한 것은 세력이 부진한 탓이며, 세력의 부진은 가르침이 포교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31] 한용운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제시하면서 불교시대를 예견하고 있다. "그렇다면 금후의 세계는 불교의 세계라 할 수 있다. 무슨 까닭으로 불교의 세계라 하는 것인가. 평등한 때문이며, 자유로운 때문이며, 세계가 동일하게 되는 때문에 불교의 세계라고 이르는 것이다.[32]" 그런데 불교의 세계를 구성하는 자유와 평등은 서구의 개념 그것이 아니고, 순전히 불교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불교유신론』은 당시 불교계에서 가장 선구적인 대안을 제시한 책이었으며, 거기에는 민족주의를 넘어서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위대한 사상이 담겨 있다.

---

30) 한용운, 이원섭 역, 앞의 책, 20면.
31) 구모룡, 앞의 글, 101면.
32) 한용운, 「조선독립의 서」, 『전집』 2, 2006, 45면.

3. 「조선독립의 서」에 나타난 자유·평등과 세계평화 지향

「조선독립의 서」는 한용운이 1919년 7월 10일 당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일본 검사의 요구에 의해 집필되었다. 이 논설의 명칭은 '독립 이유서', '독립운동 이유서', '조선독립 이유서', '3·1독립선언 이유서', '조선독립 감상의 개요',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대요', '3·1독립선언 답변서', '조선독립 감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33] 이 논설은 『한용운 전집』에 「조선독립의 서」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고,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 논설이 일본 검사에게 제출되었을 때는 「조선독립의 감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34]

「조선독립의 서」는 현재 그 소재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옥중에서 베껴 써서 감옥 밖으로 유출시켜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 1919년 11월 4일자에 게재되었던 부본도 행방을 알 수 없다.[35] 이 논설은 한용운이 일본 검사에게 제출하기 전에 휴지에 작은 글씨로 옮겨 적어 형무소 밖으로 나가는 의복 갈피에 집어넣어 내보냄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논설은 한용운의 제자인 이춘성에 의해 수습되었으며, 김상호를 통해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되어 「조선독립선언 이유」라는 제목으로 『독립신문』에 실릴 수 있었다.[36]

한용운은 이 논설에서 일본 식민지배 정책에 대한 타협주의적 발상을 단호히 배격하고 자주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었다. 그는 당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일본이 식민 지배를 즉각 철폐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 논설에서 조선의 독립은 산 위에서 굴러 내리는 둥근 돌과 같아서 목적지에 이르지 않으면 그 기세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37]

한용운은 「조선독립의 서」에서 민족주의를 넘어서 세계평화주의를 지향하였다. 그는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문명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피가

33) 김광식, 앞의 책, 2011, 283면.
34) 김광식, 같은 책, 2011, 283면.
35) 김광식, 같은 책, 2011, 320면
36) 「朝鮮獨立宣言 理由」, 『독립신문』(상해 임시정부판), 1919년 11월 4일.
37) 고명수,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에 나타난 만해의 독립사상, 『불교평론』 3권 3호, 2001, 143면.

없는 민족은 없는 법이라고 하였다.[38] 이렇게 피를 가진 민족으로서 어찌 영구히 남의 노예가 됨을 달게 받겠으며 나아가 독립자존을 도모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침략주의는 인류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가장 흉악한 마술에 지나지 않는다. 칼이 어찌 만능이며, 힘을 어찌 승리라 하겠는가"라고 하였다.[39] 그는 이 논설에서 다음과 같이 개개 민족의 자유와 평화를 세계평화의 기초로 인식하였다.

> 자유는 만물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다. 그러므로 자유가 없는 사람은 죽은 시체와 같고 평화를 잃은 사람은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이다. 압박을 당하는 사람의 주위는 무덤으로 바뀌는 것이며 쟁탈을 일삼는 자의 주위는 지옥이 되는 것이니, 세상의 가장 이상적인 행복의 바탕은 자유와 평화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터럭처럼 여기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을 달게 받는 것이다. 그러나 참된 자유는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을 한계로 삼는 것으로서 약탈적 자유는 평화를 깨뜨리는 야만적 자유가 되는 것이다.[40]

한용운은 세상의 모든 민족은 각기 자신만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이 있고 그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수하고 훌륭한 외국의 문화라고 하더라도 무작정 이식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두고 그 나라의 체질에 맞게 소화되고 정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여 자국의 문화를 강요하는 것은 용서될 수 없었다. 세계는 개개의 민족이 모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의 가치를 존중해야만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 자유는 지고하지만 남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범위 한에서 향유되어야 한다. 남의 자유를 유린하는 행위는 더 이상 자유가 될 수 없으며 그것은 약탈이며, 침략이다. 약탈과 침략은 전 인류를 공동의 적으로 돌리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멸망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한용운은 「조선독립의 서」를 통하여 일본의 침략을 정의를 벗어난 것으로

38) 한용운, 앞의 글, 2006, 347면.
39) 한용운, 같은 글, 2006, 347면.
40) 한용운, 같은 글, 2006, 346면.

규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패배로 끝이 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41]

불교는 낡은 전통이 아니라 새롭게 해석되어야 할 우리의 정신적 전통이었다.[42] 즉 불교는 발생 당시부터 계급타파를 외친 혁명적인 종교였다. 그러므로 한용운은 곧 철저한 평등주의와 구세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야말로 우리의 전통사상이라고 보았다.[43] 한용운은 미래사회야말로 불교가 주창하는 자유・평등・평화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리라고 보았다. 그러한 실현은 바로 민중에 의한 점진적인 혁명에 의해서 주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함으로써 외세 간섭과 침략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였다. 또한 한용운의 자유론은 세계평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주의 결함들을 극복하고 있다.[44] 일찌기 조지훈은 「조선독립의 서」를 최남선이 기초한 「기미독립선언서」와 비교하여 시문으로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요, 조리(條理)가 명백하고 기세가 웅건할 뿐 아니라 정치 문제에 몇 가지 예언을 하여서 적중한 명문이라고 평가하였다.[45] 조지훈은 「조선독립의 서」를 당대 최고의 명논설로 평가하였으며 이 논설에서 연합군과 일본 사이의 전쟁과 일본의 패망을 예언한 만해의 예지력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런 까닭에 제자들에게 한용운 연구를 권하였으며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박노준・인권환의 공저인 『만해(萬海) 한용운연구』[46]이다. 두 사람은 이후 한용운전집 편찬 작업에 실무자로 참여하게 된다. 그는 연합국과 일본의 전쟁을 예견하였고, 일본의 패망과 조선의 독립을 다음과 같이 확신하였다.

> 이번의 조선의 독립은 국가를 창설함이 아니라 한 때 치욕을 겪었던 고유의 독립국이 다시 복구되는 독립이다. 그러므로 독립의 요소 즉 토지・국민・정치와 조선 자체에 대해서는 만사가 구비되어 있어 다시 말할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41) 김순석, 「불교계 3・1운동에 나타난 세계평화주의」, 『불교계의 3・1운동과 항일운동』,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9년도 호국불교연구 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2018년 2월 27일.
42) 고재석, 「朝鮮光文會와 朝鮮心」, 『韓國近代文學思想史』, 깊은샘, 1991, 65면.
43) 강미자, 「한용운의 민족주의와 근대주의에 관한 일고찰—朝鮮獨立의 書를 중심으로」, 『역사와경계』 58, 부산경남사학회, 2006, 226-227면.
44) 강미자, 같은 글, 2006, 235면.
45) 조지훈, 「民族主義者 韓龍雲」, 『전집』 4, 363-364면.
46) 박노준・인권환, 『萬海 韓龍雲硏究』, 通文館, 1975.

> 각국의 승인에 대해서는 원래 조선과 각국의 국제적 교류는 친선을 유지하여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바다. (…) 다만 문제는 일본의 승인 여부뿐이다. 그러나 일본도 승인을 꺼려하지 않을 줄로 믿는다. (…) 만일 일본이 침략주의를 계속하여 조선의 독립을 부인하면 이는 동양 또는 세계 평화를 교란하는 일로서 아마도 미・일(美日), 중・일(中日) 전쟁을 위시하여 세계적인 연합전쟁을 유발하게 될지도 모른다.[47]

한용운은 조선의 독립을 신생국가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었던 독립국가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조선은 일본에 강점되기 이전에 이미 4천 2백년 넘는 세월 동안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려왔다. 다만 일본의 승인만 남았을 뿐이라고 하였다. 이 부분은 「조선독립의 서」에 나타나는 작은 오류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일본은 결코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에 조선 독립의 승인을 요청한다는 것은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 많은 독립투사들의 공적을 평가절하 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논설의 가치는 조금도 손상되지 않는다.[48] 왜냐하면 이 논설은 이러한 작은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티끌에 불과한 것이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웅혼한 기상이 있고, 명쾌한 논리로 조선독립의 정당성을 밝힌 데 있어 이 보다 훌륭한 글이 없기 때문이다.

한용운은 일본이 군국주의 체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전쟁을 도발할 것이며, 그 전쟁에서 패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 예측은 머지않은 시간이 지난 뒤에 현실로 드러났고, 조선은 독립이 되었다. 그의 이러한 탁견은 세상의 흐름을 진리의 입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진리란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하겠다. 만해는 승려였기 때문에 불교를 대중화하는데 헌신하였다. 불경에서는 “세상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나서 단 한 사람도 제도한 사람이 없다고 하라. 만약 보살이 나와 너와 중생을 구별한다면 보살이

47) 한용운, 앞의 글, 「조선독립의 서」, 352-353면.
48) 김순석, 「만해 한용운의 민족주의 운동 연구 전망」, 『만해학보』 14・15, 만해학회, 2015, 247면.

아니다"[49]라고 하였다. 이것은 "만약 세계의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법이 합쳐서 한 개의 상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지만 그 하나의 상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50]"라고 하였다. 이 세상을 형성하는데 어우러진 그 모든 것들을 나누어서 분리할 수도 없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사물은 실체가 없는 것이며,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51] 그는 "참된 자유는 반드시 평화를 동반하고, 참된 평화는 반드시 자유를 함께해야 한다. 실로 자유와 평화는 전 인류의 요구라 할 것이다"[52]라고 하였다. 나아가서 그는 조선이 독립되어야 하는 것은 온 세계의 여망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 각 민족의 독립 자결은 자존성의 본능이요, 세계의 대세이며, 하늘이 찬동하는 바로서 전 인류의 앞날에 올 행복의 근원이다. 누가 이를 억제하고, 누가 이것을 막을 것인가.[53]

조선의 독립이 곧 세계의 행복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조선에 국한된 일이겠는가. 이것은 세계의 모든 식민지가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온 세계인의 뜻이고, 하늘의 뜻이라고 하였다. 그런 까닭에 그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어찌 조선 독립에만 국한시키겠는가. 곧 온 세계가 평화롭고,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니 이것이 불교가 추구하는 이상이 아니겠는가.

한용운의 이러한 사상을 후세의 사가(史家)들은 민족주의를 넘어선 세계평화를 지향한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 반면에 민족주의자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후세의 평가를 살펴보면 박노자는 한용운의 세계평화주의 지향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였다.

---

49) 我應滅度一切衆生 滅度一切衆生已 而無有一衆生 實滅度者 何以故 修菩提 若菩薩 有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 則非菩薩.「究竟無我分」第十七,『金剛經』

50) 若世界實有者 則是一合相 如來說一合相 則非一合相 是名一合相 修菩提 一合相者 則是不可說 但凡夫之人 貪着其事.「一合理相分」第三十,『金剛經』.

51) 김순석, 앞의 글, 2018, 20면.

52) 한용운, 앞의 글,「조선독립의 서」, 346면

53) 한용운, 같은 글,「조선독립의 서」, 348면

> 한용운은 일찍이 1900년대 후반부터 근대적인 민족주의의 이념을 익히고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의 선봉에 선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만해의 가장 귀중한 측면은 바로 서구가 만든 근대적 민족주의를 동시에 뛰어넘을 줄을 알았던 것이었다. 한용운은 늘 '석가모니는 인도인뿐만 아니라 전세계, 전우주를 위하면서 깨달았다'고 강조하는 등 그는 종교에 있어서는 국경과 민족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았다. 1920년대 말-1930년대 초에 일본 불교의 국가주의적인 편향을 조선에서 불교의 세계주의적·우주주의적 원리의 원리로 비판한 사람은 한용운 뿐이었다.[54]

박노자는 한용운을 식민지 시대가 낳은 가장 뛰어난 민족주의자였다고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도 인류가 지나가야 할 낮은 발전의 단계로 생각하였다. 그는 소작 쟁의를 일으켰던 농촌 빈민을 지지하고 미래의 이상을 소유욕 없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인 '불교적 사회주의'로 설정하는 등 '종교적 진보주의자'로서의 성향을 지녔다고 평가하였다. 대다수의 식민지 지식인들이 서구 국가들의 '국민 통합'이나 '국민 정신'을 선망했지만, 만해는 1910년대 초기부터 '국가와 종교의 미신으로 민중의 정신을 세뇌시켜 무고한 사람들을 총알받이로 만드는' 서구의 애국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거의 모든 우파 지식인들이 서구의 사회진화론적 등식대로 약육강식을 '절대 법칙'으로 생각했지만 만해는 '인종의 우열을 논하지 않는 세계주의 시대'가 도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용운은 '독립운동가'였지만 그는 일제로부터의 정치적 독립뿐만 아니라 서구로부터의 지적인 독립,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인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 선각자로 평가하였다.[55]

한용운을 이렇게 평가한 박노자의 견해에 대하여 장시기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몰랐던 한용운의 면모를 외부인인 박노자가 새롭게 발견한 순간이라고 하였다. 장시기는 박노자의 말처럼 만해를 근대 민족시인이 아니라 탈근대의 세계적인 시인이라고 하였다. 한용운을 근대 민족시인으로 오인하는 순간, 우리는 한용운이 일본을 여행하면서 쓴 한시들을 제외하게 되거나 중국을 배경으로 쓴 소설 『흑풍』의 문학성을 평가절하하게 된다. 한용운은

54) 박노자, 「만해 한용운 인류를 사랑한 애국자」, 『한겨레신문』, 2003년 8월 18일.
55) 박노자, 같은 글.

근대에 부활된 민족 혹은 호국불교의 사상가가 아니라 탈근대적인 민중 다시 말하자면 일정하게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불교 사상가라고 평가하였다.[56]

장시기는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탈근대성의 특징들을 탈식민주의와 여성주의, 그리고 생태주의로 나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근대성이 추구하는 서구・백인・남성 중심주의를 이상과 현실, 정신과 몸으로 구분하고 서구와 비서구, 백인과 유색인,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에 매몰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탈식민주의만을 추구하여 세계를 서구와 비서구로 나누어 동양 중심주의로 나아가거나, 여성주의만을 추구하여 세계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여성 중심주의로 나아가거나, 혹은 원시적인 생태주의만을 추구하여 세계를 인간과 비인간으로 구분하여 원시적 자연주의로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근대적 폭력을 지속시키는 후기 근대의 사이비 다양성일 뿐이라고 하였다.[57] 박노자는 "한국 근대사 속에서 근대의 환상을 넘어선 박애주의자 한용운이 있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하였다.[58] 장시기는 서구와 다른 우리의 독자적인 근대를 꿈꾸었던 한용운의 사상을 전지구적인 탈근대성을 추구하는 오늘날에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한용운을 전지구적 탈근대성을 추구하는 우리 불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탈근대적 지식인들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하였다.[59]

이와 같은 한용운의 세계평화 지향성에 대하여 김광식은 다음과 같은 점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김광식은 박노자의 한용운 연구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그를 '민족지도자', '민족 영웅의 상'이라고 극단적인 찬양을 한 데 대해서는 지나치다고 하였다. 김광식은 첫째, 만해가 이같은 표현을 용납하지 않았으리라고 한다. 왜냐하면 만해가 3.1운동으로 수감을 마치고, 출옥 당시의 선생은 마중 나온 사람들을 외면하며, 마중만 하지 말고 마중받는 사람이 되라고 일갈한 일화를 떠올리면 만해 정신의 본질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고 한다.[60] 둘째, 박노자는 한용운을 서구적 관념인 폭력숭배, 민족주의를 넘어선

56) 장시기, 「만해 한용운의 탈근대성」, 『불교신문』, 2003년 8월 22일.
57) 장시기, 같은 글.
58) 박노자, 앞의 글.
59) 박노자, 같은 글.

박애주의자, 혹은 서구로부터의 지적인 독립을 하였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 그런 면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한용운은 일평생 민족의 독립을 지향한 독립운동가였다고 한다.[61] 김광식은 만해가 서구와 일본 문명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에 매몰되지 않으려 한 자주성은 있었지만 이를 서구로부터의 지적인 독립이라고 개념지움은 적절치 않다고 하였다.

김광식은 한용운을 민족의 독립 나아가서는 반제, 반봉건이라는 당시 시대적인 과제에 충실하였던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근대성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지금껏 한용운에 대한 연구가 문학에 치우쳐 그의 본질이 선명치 못하였기에, 추후에는 그의 사상, 위상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또한 한용운 연구에 있어 그의 일생을 적절한 시기로 나누어 보아야지, 일괄하여 단정하는 것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셋째, 박노자는 한용운을 탈근대사상가, 정신적인 아나키스트로 표현하면서 근대성의 비판자로 자리매김한 데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였다.[62]

왜냐하면 한용운은 일생동안 민족의 독립을 갈구하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설혹 탈근대적인 측면이 있었다 해도 이는 그의 사상이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신적인 아나키스트라고 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용운의 행적・지향・사상은 한국적인 바탕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용운은 불교의 진리성, 보편성을 자신의 사상으로 만들었기에 이는 탈근대성과 연결될 수 있지만 그 경중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광식은 박노자에게 탈근대성 개념을 통해 한용운 이해를 하기 보다는 근대성, 민족 독립의 관점에서 한용운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였다.[63]

박노자와 장시기는 만해에게서 근대 사회의 특징인 민족주의를 넘어서 세계평화를 지향한 모습을 찾아내려고 하였다. 두 사람은 만해에게서 근대적인 사조를 뛰어넘은 탈근대적인 모습을 찾고자 하였으며 그것이 세계평화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았다. 앞에서 이미 말한 바 있지만 불교에서 민족주의를

60) 김광식, 「만해의 탈근대성 문제있다」, 『불교신문』, 2003년 8월 27일.
61) 김광식, 같은 글.
62) 김광식, 같은 글.
63) 김광식, 같은 글.

찾아낸다는 것은 한 부분에 매몰되어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불교 교리와 민족주의는 양립하기가 어려우며 호국 불교 또한 마찬가지다. 민족주의와 호국불교는 그것이 민족이건 국가이건 간에 지켜야 할 그 무엇이 있다. 그렇지만 불교는 시비와 분별을 경계한다. 왜냐하면 가리고, 분별할 것이 본래 없기 때문이다.

불교계에서 발생한 어떤 사안을 해명함에 있어 교리를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아니면 교리와 전혀 무관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과관계를 해명해야 할 것인가. 필자는 불교 교리는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교리에서 제시되는 영역 가운데는 인간 사고 능력으로는 추론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 그렇다고 과학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예를 들자면 세상 모든 일이 그렇게 된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 인과응보의 법칙은 지극히 과학적이지만 어떻게 그런 결과가 도출되었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한용운은 독립운동가요, 시인이기 이전에 그가 승려였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의 독립운동을 민족주의에 국한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불교는 민족 그것을 넘어 세계가 하나라고 하고, 그 세계의 본질이 여여부동(如如不動)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4. 맺음말

본고는 한용운의 독립운동이 민족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전개되어왔다는 기존의 설에 대하여 민족주의를 넘어서 세계평화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조선불교유신론』과 「조선독립의 서」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한용운의 논설은 군더더기가 없고 분명하기 때문에 쓰여진 글 그대로만 읽어도 자유와 평화를 추구한 면모를 찾아낼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문학을 제외한 부분에서 만해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진하여 연구자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용운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당시 불교계 고등교육기관이었던 중앙학림의 강사를 지낼 정도로 불교 교리에 해박한 승려였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한용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용운은 한말 서구 제국주의 세력이 밀려들던 격동기에 태어나 국권이 상실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그는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세계 여행을 선택하였고 그 길에서 서구 문명의 자유와 평화를 만났다. 그는 서구 철학을 수용하여 그것을 불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글로 쓴 것이 『조선불교유신론』이었다. 그는 이 책에서 불교 교리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긍정과 부정마저도 포용하는 세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나와 우리, 이웃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민족주의를 넘어 세계평화를 지향하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조선불교유신론』은 당시 가장 선구적인 대안을 제시한 저술이었다. 이 책은 서구 사상을 담고 있었고, 그 서구 사상이 불교에 투영되었을 때 혁신적인 변화를 담보할 수 있었다. 이 주장들은 당시 사회에 수용되기 힘든 것들이었지만 오랜 세월을 두고 불교계는 한용운이 주장하였던 방향으로 모습을 바꾸어 가게 되었다.

모든 민족은 각기 자신만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하다. 그런 까닭에 외국의 문화가 아무리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정착되는데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시간과 문화적 흡수장치가 필요하다. 강대국이 자국의 문화가 우수하다는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약소국에 일방적인 수용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세계는 무수히 많은 민족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민족 간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 다양성이 무시되는 순간 더 이상 평화는 유지되기가 어렵게 된다. 이 경우 파괴와 약탈이 수반되며 상대의 자유는 유린된다. 파괴와 약탈을 주도하는 세력은 전 인류를 공동의 적으로 만들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참혹한 패배로 끝이 날 것이다. 불교는 출발부터 불평등한 계급타파를 외친 혁명적인 종교였다. 불교는 자유・평등・평화를 추구하는 종교인 까닭에 외세의 간섭과 침략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였다. 한용운의 사상은 그가 승려였다는 것을 이해해야 제대로 볼 수 있다.

한용운은 외세 간섭과 침략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였으며, 그의 자유론은 세계평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주의 결함들을 극복하고 있다.

이 말은 한용운을 이해하려면 불교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비로소 그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불법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자유와 평화를 느끼라고 한다. 아니 모든 생명은 그런 성품을 타고났으니 지금 그것은 느끼면 되지만 아쉽게도 무명에 가려져 알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한다. 한용운을 평생을 민족주의자로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지만 그의 사상은 민족주의를 넘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세계평화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

▮ 참고문헌

『金剛經』
『경향신문』
「朝鮮獨立宣言 理由」, 『독립신문』(상해 임시정부 발행), 1919년 11월 4일.
한용운전집간행위원회. 『한용운전집』, 불교문화연구원, 2013.
김광식, 「만해의 탈근대성 문제있다」, 『불교신문』, 2003년 8월 27일.
박노자, 「만해 한용운 인류를 사랑한 애국자」, 『한겨레신문』, 2003년 8월 18일.
장시기, 「만해 한용운의 탈근대성」, 『불교신문』, 2003년 8월 22일.

강미자, 한용운의 민족주의와 근대주의에 관한 일고찰—朝鮮獨立의 書를 중심으로」, 『역사와경계』 58, 부산경남사학회, 2006.
_____, 『한용운의 불교개혁운동과 민족주의운동』, 경성대 박사학위논문, 2007a.
_____, 『한용운의 신간회와 반종교운동 인식에 대한 일고찰』, 『한국불교학』 48, 한국불교학회, 2007b.
고재석, 「국내지식인과 신전통주의」, 『한국근대문학지성사』, 깊은샘, 1991.
_____, 「朝鮮光文會와 朝鮮心」, 『韓國近代文學知性史』, 깊은샘, 1991.
고명수,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에 나타난 만해의 독립사상, 『불교평론』 3권 3호, 2001.
구모룡, 「만해 사상의 동아시아적 맥락—방법적 모색」, 『만해 연구, 성찰과 모색』, 민족문학작가회의, 2004.
김경복, 「한용운 시의 유토피아적 의식 연구」, 『한국민족문화』 74,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
김광식, 「한용운의 민족의식과 조선불교유신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3, 121-156면.
_____, 『만해 한용운 연구』, 동국대 출판부, 2011.
_____, 「한용운 민족운동 연구에 대한 성찰」, 『한국선학』 31, 한국선학회, 2012.
_____, 「한용운의 불교사회주의」, 『불교학보』 85, 불교문화연구원, 2018.
김상현, 「한용운과 공약삼장」, 『동국사학』 19·20, 1986.
_____, 「한용운의 독립사상」, 『한용운사상연구』 2, 한용운사상연구회, 1981.
_____, 「3·1운동에서 한용운의 역할」, 『이기영박사 고희기념논총: 불교와 역사』, 1991.
김순석, 「만해 한용운의 민족주의 운동 연구 전망」, 『만해학보』 14·15, 만해학회, 2015.
_____, 「불교계 3·1운동에 나타난 세계평화주의」, 『불교계의 3·1운동과 항일운동』, 대한불교조계종 백년대계본부,불교사회연구소 세미나 발표자료집, 2018년 2월 27일.
김영석, 「한국시의 생성이론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84.
김영호, 「휘트먼과 한용운의 비교연구」, 일리노이주립대 박사학위논문, 1984.
김용태, 「한국 근대시의 경험 유형 연구: 소월, 이상, 만해의 대비」,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89.
김재홍, 「한용운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1.
_____, 「만해문학연구 어디까지 왔나」, 『만해축전』,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04.
김춘남, 「양계초를 통한 한용운의 서구 사상 수용」, 『한국학논총』, 현암신국주박사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85.
김현자, 「김소월, 한용운 시에 나타난 상상력의 변형구조」,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2.

박걸순, 『한용운의 생애와 독립투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_____, 「3·1운동 전후 한용운의 독립사상과 구조」,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91, 원불교사상연구원, 2022.
서준석, 「한용운의 불교관계 저술의 현황과 과제」, 『만해축전』,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04.
송건호, 「만해 한용운의 민족운동」, 『한용운사상연구』 3, 한용운사상연구회, 1994.
신용하, 「3·1운동 발발의 경위」, 『한국근대사론Ⅱ』, 지식산업사, 1977.
신용협, 「현대 한국시의 시 정신 연구: 소월. 만해, 석정, 청마 시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89.
유근조, 「소월과 만해 시의 대비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83.
윤재근, 「만해시 『님의 침묵』연구: 연작시로서 특성을 중심으로」,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82.
이지원, 「3·1운동기 '평화사상': 조소앙과 한용운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4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전보삼, 「만해 한용운과 신간회」, 『유심』 14·15, 한용운사상실천선양회, 2003.
_____, 「한용운의 3·1독립운동에 관한 일고찰」, 『한용운사상연구』 3, 한용운사상연구회, 1994.
조명제, 「한용운의 『조선불교유신론』과 일본의 근대지」, 『한국사상사학』 46, 한국사상사학회, 2014.
조성택, 「근대불교학과 한국근대불교」, 『민족문화연구』 43, 2007.
조지훈, 「民族主義者 韓龍雲」, 『한용운전집』 4, 불교문화연구원, 2006.
한상길, 「근대 동아사아 사조와 만해의 개혁사상」, 『선문화연구』 16, 2014.
한용운, 이원섭 역, 『조선불교유신론』, 만해사상연구회, 1983·2006.

【Abstract】

Han Yong-woon's independence movement for world peace —With the focus on 『The Theory of Reform of Korean Buddhism』 and 「The Letter of Independence of Korea」—

Kim, Sun-Seok*

Han Yong-woon was a poet as a monk and an independent activist. He accepted Western civil ideas, but the source of his thought was Buddhism. Until now, the existing research has been studied within the framework of Han Yong-woon's independence movement as nationalism. Nationalism is difficult to reconcile with Buddhist thought. It would be reasonable to regard Buddhism as a characteristic of a de-ethnic universal orientation. In the era when militarism was raging, he dreamed of freedom and peace and presented the way to the public. In the period of confusion, he can be seen as a true investigator in that he was a practicing Buddhist as a brilliant intellect. Han Yong-woon was born in a turbulent period when the Western imperialist forces were pushed and became a monk when he watched as he lost his national rights. He chose to travel the world to find a new way and on the way he met the freedom and peace of Western civilization.

Han Yong-woon accepted Western philosophy and reinterpreted it from a Buddhist perspective. That was 『Chosun Buddhist theism』 and 『independence of Joseon』. In these books and editorials, his thoughts are intensified, and the point is that freedom and equality are the natural rights granted to all, so no one should infringe. From this point of view, Han Han Yong-woon's idea was pursuing freedom and world peace beyond the nation.

Keywords: Han Yong-woon, Imperialism, nationalism, world peace, The Theory of Buddhist Religion in Joseon Dynasty, a petition letter of Independence of Joseon, Kant, René Descartes.

접수일: 2022.06.29. ‖ 심사일: 2022.07.18. ‖ 게재확정일: 2022.08.17.

* Senior Researcher, The Korean Studies Institute.